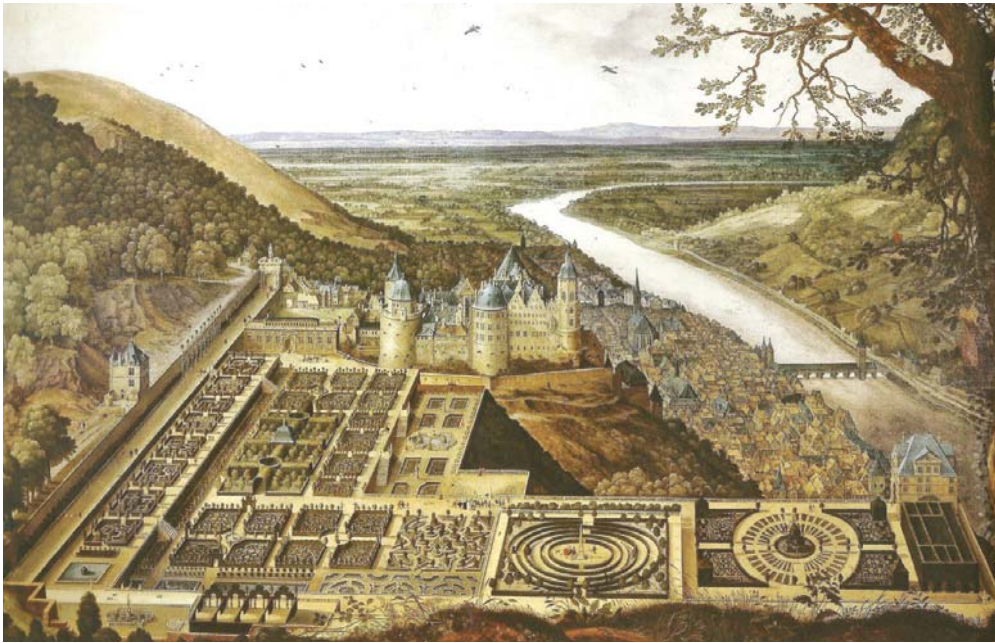


#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에 나오는 이 구절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교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란 대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교회는 기복(祈福)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신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된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가르쳤고 믿음과 더불어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6

세기의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말하였다.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과 21문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자.

## 믿음과 연합 (20문)

앞에서 언급한 교회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사람의 ‘자기 확신’에 방점이 놓이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실을 강조한다. 20, 64, 76문을 살펴보자.

20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恩德)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64문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연합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76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76문은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성찬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다(요 6:35-36. 참조. 6:40).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 떡을 ‘**먹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참된 믿음 (21문)**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인 21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받는 문장이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21문의 고백에서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같은 구절들이 핵심 구절로 제시되고 있다.

이 구절은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인 멜란히톤이 1552년에 작성한 요리문답과 비교하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믿음으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은 마귀나 불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역사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조항들[사도신경] 모두를, 그리하여 그 조항들이 가리키는 목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을 **알고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중보자이고 구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sup>1)</sup>



멜란히톤 - 루터의 동역자이자 우르시누스의 선생

두 요리문답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신뢰’,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과 은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멜란히톤은 이 내용을 그의 『신학개요』에서 더 발전시켰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요 저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우르시누스가 멜란히톤의 제자로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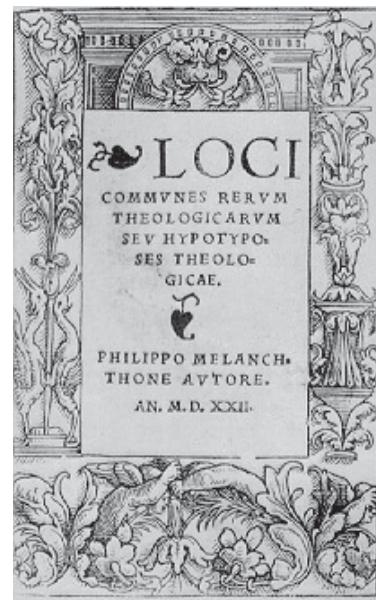
###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21문 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멜란히톤의 요리문답(목회자 후보생 시험)은 ‘역사론적 지식’과 구분되는 ‘확실한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 믿음을 ‘지적 동의’로 가르쳐 온 것에 대한 그들의 성경적인 반응이다.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적 동의’로 가르쳤기 때문에 ‘확실한 지

식’을 소유할 수 없었고, 믿음과 더불어서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서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성경의 ‘안다’는 말처럼, 여기에서도 지식은 단지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말이다.<sup>2)</sup>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단지 “세상의 구주”로만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확실한 지식’은 곧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굳은 신뢰’와 동의어이다.

믿음은 또한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지식



멜란히톤의 『신학개요』

2) J. Beeke는 Ursinus가 그의 해설서에서 지식을 ‘머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였다고 완곡하게 비판하면서 ‘경험된 지식’(experienced knowledge)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 Beeke, Heidelberg Catechism Sermons, Vol 1 (Reformation Heritage Books, n.d.), 161-62. 비키의 이러한 해석에 다소 치우친 면이 있음은 발커가 잘 지적하였다. Frank H. Walker, Theological Source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 2003, 153-155).

1) Melancthon, “Examen Ordinandorum 1552.” Lyle D. Bierma, The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 Reformation Synthesis (WJK, 2013), 42에서 재인용.

(notitia)만이 아니라 굳은 신뢰(fiducia)도 함께 이야기한다. 내 마음속에서 굳은 신뢰를 일으키는 분은 성신이다. 내가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신비이다. 말씀과 성신은 분리할 수 없다. 말씀과 성신을 분리하면 양극단 가운데 하나로 떨어진다. 즉 머리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정통주의적인 주지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감정적인 확신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다. 지식과 신뢰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두 가지 면이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신뢰가 없는 지식은 ‘죽은 정통’이 될 것이고, 지식이 없는 신뢰는 ‘감정적인 경건주의’를 낳을 것이다.<sup>3)</sup>

###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21문 하)

21문은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가르친다.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 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 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완전한 믿음’과 동의어는 아니다.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알아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sup>4)</sup>

굳은 신뢰가 있다고 해서 항상 씩씩하기만 하고 회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죄와 비참함에 대한 깨

달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낙담하면서 좌절하겠지만,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경우이라도 성신께서 주시는 확신에 도달한다. 죄와 비참함을 더 알아 가는 동안 더욱 큰 확신에 도달한다는 것은 성신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다.

### 믿음과 교회 (21문 하)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은 이처럼 매우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이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지체와도 연합이 되고, 따라서 요리문답 21문에서처럼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라고 겸손히 고백한다.

이러한 표현은 멜란히톤이 1552년의 요리문답을 1554년에 라틴어로 다시 작성하면서 첨가한 부분에도 나온다. “나는 죄 사함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개인적 신앙’의 발견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 바르게 고백한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그 후에 교회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를 아는 지식 또한 점차 자라 가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백하고 나아간다. 성신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그 믿음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 믿음과 삼위일체의 사역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21문을 찬찬히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잘 드러나 있다. 21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신께서 일으키신 확신’과 같은 말이 나온다.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

3) F. Klooster, Our Only Comfort: A Comprehensiv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Faith Alive, 2001), 209-210, 217-218. 종교개혁 당시의 여러 요리문답들은 믿음을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설명하였다. 여러 요리문답의 예에 대해서는 219-224쪽 참조.

4) C. Bijl, Houvast en troost (Barneveld, 1998), 79.

고 그러한 말을 사용한 것인데 우리는 칼빈에게서도 믿음을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한 것을 읽는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성신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7절)



칼빈의 초상화

여기에서 칼빈은 믿음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르치고, 그 사역의 결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요리문답 21문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성신께서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리스도의 공로’ 등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

21문에서는 믿음을 개인주의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핵심을 잘 제시하였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사망과 생명의 문제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일과 관련하여서는 나

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삼위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과 큰 대비를 이룬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면서 고백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에 속하기를 추구한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는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을 교회 안에서 찾는다(엡 4:16).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